통계자료분석 4주차 과제

20191245 노유정

12장 논의사항 2번 문제 ============

2. 1981년 Radelet 교수는 미국에서 발생하는 흑인의 부당한 법적인 차별을 규명하기 위하여 조사를 시작하였다. 이에 대한 대응으로, 플로리다 주 정부는 1976년에서 1977년까지의 326명의 살인범에 대한 사형선고 건수를 공개하였다.

          사형선고의 여부

         예    아니오 사형선고 비율

백인     19     141      12%

흑인     17     149      10%

위의 자료를 기초로 Radelet 교수는 피해자의 인종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조사를 실시하였다.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(피해자의 인종)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백인              흑인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사형선고의 여부   사형선고의 여부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예      아니오     예     아니오

(가해자 인종) 백인      19      132        0         9

(가해자 인종) 흑인      11        52        6        97

위의 자료를 기초로, 플로리다 주에서 흑인의 부당한 법적인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논의하시오.

자료에서 추가로 파악한 것을 비율로 나타내 보자면(가해자-피해자)

총 사형선고 비율은 326건 중 36건으로 11%

백인-백인의 사형선고 비율은 151건 중 19건으로 12%

백인-흑인의 사형선고 비율은 9건 중 0건으로 0%

흑인-백인의 사형선고 비율은 63건 중 11건으로 17%

흑인-흑인의 사형선고 비율은 103건 중 6건 6%이다.

피해자가 백인인 살인사건의 사형선고 비율은 214건 중 30건으로 14%

피해자가 흑인인 살인사건의 사형선고 비율은 112건 중 6건으로 5%이다.

우선 총 사형선고 비율을 보면 가해자에 인종에 관계없이 11%에 비슷한 수치를 내고 있다. 하지만 이는 누가 죽었는지, 정확히는 누가 누구를 죽였는지가 포함되지 않은 수치이다. 흑인이 법적으로 부당한 차별을 받고 있는지를 알려면 가해자가 흑인일 때 사형선고가 더 내려졌거나, 피해자가 흑인일 때 사형선고가 덜 내려졌거나를 파악하면 된다.

흑인이 법적으로 부당한 처벌을 받지 않았다면, 우선 가해 기준으로 흑인 살인범의 사형선고 비율 = 흑인-백인의 사형선고 비율 = 백인-백인의 사형선고 비율 = 총 사형선고 비율을 만족해야 한다. 각각 10%, 17%, 12%, 11%로 흑인-백인의 경우가 눈에 띄게 큰 것을 볼 수 있다. 백인-백인의 경우 12%로 총 사형선고 비율과 비슷하게 나왔으므로, 피해자가 백인이기 때문이기보다는 가해자가 흑인이기 때문이거나, 흑인이 백인을 죽였기 때문이거나 등이 원인이 될 수 있다.

마찬가지로 흑인이 피해자인 경우를 따져보면, 흑인 살인사건의 사형선고 비율 = 백인-흑인의 사형선고 비율 = 흑인-흑인의 사형선고 비율 = 총 사형선고 비율이어야 흑인에게 부당한 차별이 없었다고 할 수 있다. 각각 5%, 0%, 6%, 11%로, 보다 확연한 차이를 느낄 수 있다. 백인-흑인의 사형선고 경우는 case가 적어 제외하더라도, 전체적으로 사형선고 비율이 낮다. 이는 명백하게 피해자가 흑인인 경우에 살인범에게 사형선고가 내려지는 경우가 적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.

살인범 표본에 레이시스트가 포함되었는지, 살인 이외의 죄로 가중처벌이 있었는지 등을 파악할 수 없어 완벽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지만, 피해자의 인종과 사형선고는 독립적이지 않았고 흑인이 피해자인 경우 사형선고가 적게 내려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. 따라서 법정에서 흑인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.

13장 논의사항 3번 문제 ============

3. 호선효과와 존헨리효과를 비교하고, 여기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논의하시오.

호선효과는 특별대우를 받는 처리그룹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특별대우를 받는다는 생각에 평소와 다르게 행동하게 되는(오버액트) 현상이고, 존헨리효과는 호선효과와 반대로 오히려 특별대우를 받지 못한다는 생각에 대조그룹에서 오버액트가 일어나는 현상이다.

두 효과의 문제점은 자신이 속한 그룹이 남들과 다른 대우를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에서 기인하기 때문에 다른 그룹과의 차이를 느끼지 못하도록 정보를 제한하면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다.